

가슴이 뛰는 삶, 차안박쟁이 그녀를 만나다

20년 장기근속 신촌차안박피부와 정숙정 간호과장

20년,
7300일,
175,200시간..

그 뒤의 계산은 크게 의미 없을 정도로 숫자의
향연이다. 입사 20주년 기념 인터뷰엔 손사래
를 치던 그녀. 후배들을 위함이라고 했더니
어렵게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딱 이맘때 ‘10주년’을 맞이한 관리자 인
터뷰시에 열정의 빛이 한가득이었던
그녀와의 추억이 소환됐다.

10년을 떠올로 그녀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반적인 안정감과 함께
바른 기운을 잔뜩 충전받은 느낌이다.
그녀와의 인터뷰를 날 것 그대로
 옮겨 본다.



입사 20주년, 간단치 않은 세월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무색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입니다.
입사 후 10주년은 조금은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 참 길다 싶었어요.
그 후로 10년은 여전히 좌충우돌했지만 조금은 주변을 살피게 되고,
즐기며 지내다 보니 순식간에 “20년”이라는 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입사 후 간호사라는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참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피부 고민을 해결해 나
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라는 피부
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어쨌든 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환이

든 미용이든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피부건강이 가져다 주는 삶의 행
복은 큰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진료와 치료, 시술을 잘하는 두 원장님과의 인연, 나를 믿
고 따라주는 신촌 멤버들과의 조우는 20년동안 계속 이어지는 행운
입니다.

관리자는 온 몸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던데요. 알듯 모를듯 합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신촌점에서 근무를 시작할 즈음에 태어난 세대가

요즘 이슈인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비롯한 90년대생들입니다. 물론 만나는 고객님 그리고 동료 직원도 그러하죠. 관리자들의 통과의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관리의 난제가 있거든요.

세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책도 읽고 강연도 열심히 찾아 들었습니다. 세대를 인정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흔히들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랬구나'로 한템포 쉬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법대로 열심히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도 보이더군요.

귀도 눈도 마음도 열어 놓았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마치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제가 좀더 일찍 경험한 부분은 알려주고 그들의 문화는 인정하고 수용하다 보니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물과 기름이 아니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온 몸으로 소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랬구나'라고 한마디만 먼저 꺼내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어지는 행운, 그 보석같은 동료직원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

나를 키운 힘은 스마트한 고객님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메디컬 스킨케어라는 표현도 익숙치 않았던 때 주치의의 제안에 따라 치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고객님들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그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

보가 너무나 다양한 채널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시술정보 공유도 활발해지다 보니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 분명 이러한 현상들이 순기능도 있지만 '피부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단순히 고객님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스마트한 고객에 상응하는 피부 전문가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장을 가장 자극한 분들이 고객님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고마운 일인 거죠.

과장님에게 차앤박피부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스개 소리로 '차앤박쟁이'라는 말을 들어요. 에이~~ 그저 구성원일 뿐인데 싶다가도 포털이나 SNS 채널내에서 지점을 막론하고 차앤박 피부과 병원에 대한 악성 글을 발견할 때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면 어쩔 수 없나보다. 생각 해요. 또 평소에는 일반 직장인처럼 있다가도 피부 관련 행사에 초청받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면 차앤박피부과 일원으로써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죠. 옷 매무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 됩니다. 다른 나라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딱 그 심정이예요.

가슴이 뛰는 삶, 현재 진행형인가요.

신촌 차앤박피부과는 내가 가장 나 다운 나, 내가 좋아하는 나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다는 게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내 청춘, 내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행로인거죠. 종종 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엄마는 병원에 있을 땐 잘 웃고 힘이 넘치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지 않냐고. 굉장히 쓴소리라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래요. 제가 이 곳에만 있으면 살아 있는 듯한 느낌, 신촌 차앤박을 찾는 고객님, 직원에게 뭐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곳입니다.

가슴이 뛰는 삶. 한동안 그녀의 SNS 프로필 소개글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흥조 가득한 설렘을 간직하고 있는 현장파 그녀다. 그 기운을 지면으로나마 느껴 보길 바란다. 이름하여 정숙정 표 바른 기운이다. (끝)



20주년을 맞아 동료 직원들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파티. 눈물을 결국 쏟아버린 정숙정 과장. 케익 위 미니어처는 맞춤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멋진 동료들이다. 즐거운 피부 상상력이 실현되는 곳 신촌차앤박 포에버!

